



기아차 직원들 차량 직접 수송 화물연대 파업으로 완성차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14~15일 임직원 200여명을 투입해 완성차 1천300여대를 담당 현대차 아적장과, 평동공단 아적장으로 수송했다. 14일 오후 개별 수송에 나선 기아차 임직원들이 광주서부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완성차를 옮기기 위해 기아차 서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노동계 릴레이 파업 ‘회오리’

화물연대 이어 건설·보건 등 확산 광양항 등 물류 사실상 마비 상태

지난 13일 화물연대의 총 파업을 시작으로 16일 건설기계노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민주노총, 보건 의료노조 등이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 산업계로 파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노동계의 총파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연계되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고 있다. <관련기사 3·7·11면>

현장에서 덤프트럭, 레미콘, 굴착기 등을 운행하는 건설기계노조 광주·전남지부 1천500여명의 조합원들도 동시에 총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대자동차 등이 소속된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쟁의조정 신청, 25~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금

속노조와 함께 민노총의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보건 의료노조도 2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협상 추이에 따라 본격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철도, 공항항만노조가 화물 대체수송 거부 선언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23~25일 사흘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산업계가 초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전국 주요 항만 마비=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이 급감하고 일부 컨테이너 부두는 적치된 컨테이너들로 한계상황에 이르는 등 전국 물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15일 낮 12시 현재 전국 주요 사업장과 항

만에서 1만3천369대가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수출 통관 지연에 따른 차질액은 16억9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14일 498TEU로 하루 평균 물동량(5천100TEU)의 9.8%에 그쳤다. 부산항의 경우 화물 하루 반출입량이 7천540TEU(20피트 짜리 컨테이너 기준)로 하루 평균 반출입량 3만511TEU의 24%에 불과했고, 감만항의 컨테이너 장차율은 100%를 넘어서 부두 기능이 마비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행위로 계속돼 부산과 여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전남 생산 현장에서는 물류 마비, 원자재 수급 중단에 따른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 2차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대우일렉트론노스에 따르면 매일 반출돼야 하는 컨테이너 90여대분량의 물량이 묶인 데다 아직 장 마저 포화상태에 달해 16일부터 생산라인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40피트 컨테이너(FEU) 230대 분량의 제품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기·인현주기자 penfoot@

黨政, 다단계 운송구조 간소화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화물연대 파업의 주원인이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화주 및 물류회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동

참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회를 갖고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연대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당정은 운송시장 구조의 근본 개선

책 마련을 위해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금주 초 구성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다단계 구조, 복잡한 물류·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0개월 이상 못들어온다”

李 대통령, 이회창 선진당 총재와 회동서 밝혀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난항

한·미간 쇠고기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간에 현재 진행중인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2시간 30분에 걸친 오찬 회동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고 있고 30개월 이상된 쇠

고기든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너무 주장하다가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면 국민께 직접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통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협상의 결과와 의미, 경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쇠고기 정국이 대중 마무리되면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과 재차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수출입 자율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협정문 5조의 검역규권 포기 내용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양국 통상·농업 대표들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들을 집중 조율했으나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 등 양측 협상단은 전날 2시간30분 동안 회담한 데 이어 이날도 USTR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16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협상을) 하루 쉬고 내부 협의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양국 정부가 이틀간의 추가 협상 결과를 놓고 내부 협의를 거친 뒤 16일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 도출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미국은 협상에서 일단 양측 민간 수출입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성녹차, 군수가 보증합니다”

7월부터 마크 부착

다음달부터 보성군수가 품질을 직접 인증하는 보성녹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성군은 ‘보성녹차 군수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작업을 지난 3일 마무리 지었으며 오는 27일까지 품질인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군수 인증’은 타기관의 무농약 인증이나 안전성 조사, 친환경, 유기농 인증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정해 신뢰도를 높였다. 심의를 통과한 녹차는 ‘군수인증’ 상표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번호가 기재된 제품 설명서가 부착되며 1차 심사는 이달 말에 이뤄져 다음달이면 ‘군수인증’ 녹차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보성군은 ‘군수 인증’을 받은 녹차를 행정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각종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 전시판매 등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군수 인증’ 상표를 붙여 유통되는 녹차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부정행위나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망학원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2008 SUMMER

밴쿠버 영어캠프 [광주]

2008 여름방학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특징

- 1. 밴쿠버, 캐나다, 미국 등 해외 유명 관광지 방문
- 2. 밴쿠버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텔 숙박
- 3. 밴쿠버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텔 숙박
- 4. 밴쿠버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텔 숙박

신청기간

문의처